



한국천문연구원 오재건 감사님을 만났다. 무슨 인연일까. 공교롭게도 인터뷰 며칠 전에 연세대학교 캠퍼스 내에서 근무하는 한국우주전파관측망(KVN) 연구원들을 방문하고 KVN 전파망원경 시설을 둘러보러 오신 적이 있었다. 그 때 가볍게 수인사를 나누었는데 며칠 사이에 이렇게 인터뷰를 위해서 같은 장소에서 다시 만나게 될 줄이야.

서울대학교에서 전기공학을 전공한 오 감사님은 1967년 당시 도시바 한국분소였던 이천전기에서 전력용 변압기를 설계 제작하는 일을 시작으로 오랫동안 민간 및 국책연구소에서 주로 과학기술정책 연구를 수행해왔다. 기술 기반이 약하던 당시에는 첫 작업부터 모든 것을 스스로 찾아서 시작해야했다고 한다.

“이천전기에 있을 때였는데, 명동 뒷골목을 뒤져서 변압기 설계가 담긴 책을 찾았어요. 책에 실린 그림 하나 달랑 보고 전력용 변압기 설계를 했습니다. 성능이 제대로 나와서 1968년 과학전람회에 출품하기도 했어요.”

독일 유학을 준비하던 중 선배의 소개로 우연찮게 일하게 된 당시 중앙대 부설연구소였던 한국산업개발연구원에서 21년간 근무를 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방산유공표창도 두 차례나 수상했고 한국산업개발연구원 부원장을 역임했다. 또한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서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한국과학기술계의 간간이 된 여러 정책연구를 수행하였다. 기대하지 않았던 보람 있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1996년 후반부터는 연구 성과 확산 및 기술이전에 관심을 갖고 연

구를 수행해 왔어요. 그 이듬해에 결과 보고서를 냈는데 이게 OECD 한국조사보고서에 인용되기도 했지요.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오 감사님이 수행한 많은 정책 연구들 중에는 천문우주와 관련된 것들도 여럿 있었다. 그 이야기를 들어봤다.

“서울 올림픽을 대비해서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통신/방송위성을 도입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연구도 수행했어요. 당시에는 실현되지 않았지만, 이 연구 결과가 나중에 무궁화위성 사업의 기초 자료가 되었지요. 1990년에는 위성통신 및 우주개발에 관한 전문가 모임을 만들었어요. 최순달 카이스트 교수님을 회장으로 모시고 제가 부회장을 맡아서 일했습니다. 정부와 학계와 민간 기업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톡톡히 했었지요.”

기초 자료조차 없던 발사체 분야의 정책 연구도 수행했다.

“소련과 미국, 프랑스, 중국, 인도와 일본. 이렇게 다른 시기에 발사체를 개발한 나라들의 기술 개발 패턴을 연구한 적이 있어요. 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발사체를 개발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골몰했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쉐린저호 발사 장면도 직접 봤어요.”

이렇게 우리나라의 천문우주과학기술에 대한 정책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하면서 생긴 한국천문연구원과의 인연 이야기가 이어졌다.

“사실 우주과학기술기초에 관한 연구의 결과로 한국천문연구원의 전신인 천문우주과학연구소를 건립하는 안을 마련하게 되었어요. 초안 작성에 제가 참여를 했습니다. 카이스트 나정웅 교수와 국립천문대 김두환 실장과 함께 일을 추진했었지요. 마침 김두환

실장과는 회의 때 같은 방을 쓰면서 친해졌어요. 알고 보니 저하고 김 실장 형이 대학 동기였어요. 청와대로 국회로 열심히 뛰어다녔습니다. 1986년에 드디어 천문우주과학연구소가 만들어졌고 저는 초대 자문위원으로 인연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이런 인연으로 한국천문연구원에 대한 애정이 각별했었고 늘 관심 있게 지켜보며 도움을 주려고 노력했다고 한다.

“이런 한국천문연구원에서 감사로서 제 평생의 일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어서 무척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떤 감사일과 또 어떤 감사이길 원하고 있을까, 궁금했다.

“내가 감사로서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기관이 성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긍정적 입장에서 감사활동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감사가 아닌 부족한 부분을 진단해서 지도하는’ 방향의 감사 활동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부 통제 시스템과 임직원 견제 기능이에요. 진단 지도를 통한 내부 통제 시스템 구축 과정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직원들과 자주 대화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결국 제 감사 활동의 모든 것은 한국천문연구원의 성장을 위한 고언이지요.”

감사 활동의 정의와 원칙부터 시작해서 긴 이야기가 이어졌지만 오 감사님의 이 말 속에 그의 애정 어린 시선과 감사로서의 역할에 대한 자부심이 모두 담겨있는 것 같았다.

이쯤에서 별 이야기로 화제를 돌렸다. 천문대 이야기를 꺼내자 준비하셨다는 듯이 말을 이어가면서 언뜻 보기에도 깔끔하게 잘 정리된 해외 천문대 순방보고서를 보여주었다.

“작년에 해외 천문대 몇 곳을 돌아다녀봤습니다. 한국천문연구원 1미터 망원경이 있는 페몬산에도 갔어요. 그곳은 별이 쏟아지더라고요. 로웰천문대, 팔로마천문대, 윌슨산천문대도 둘러 봤어요. 중요한 곳은 다 구경했습니다.”

한국천문연구원에 근무를 하고 계시니 지인들로부터 별 이야기와 관련된 질문을 많이 받을 것 같다고 넌지시 물어보았다.

“제 친구들이 별 좀 보자 그래요. 일반인들도 우주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작년 10월에 친구들 데리고 소백산 천문대에 간 적이 있었어요. 구름이 많이 끼어서 별은 못보고 다음에 또 가기로 했지만 말이죠. 방학 때 다시 한번 갈 계획이에요.”

왜 이렇게 별 보기가 힘든 것일까. 천문학 관련 행사만 있으면 비가 온다던 터무니없는 징크스가 떠오르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다.

“가족들과 함께 대전시민천문대에 간 적이 있어요. 초등학교 2-3학년 손주 녀석들이 플라네타리움 보는 것을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서울 여의도에서 별축제 할 때면 손주들 데리고 구경도 가곤 합니다. 언론 매체에서 자주 접해서인지 아이들도 박석재 원장님을 알아봅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쫓아다니지요.”

좋아하는 별이나 별자리가 있는지 궁금했다.

“복두칠성이나 삼태성은 금방 찾아낼 수 있어요. 제 탄생 별자리가 전갈자리인데 찾아 본 적은 없어요.”

오재건 감사님은 산에 가는 것을 특히 좋아하신다고 한다. 즐겨두는 바둑은 5급 정도.

“한 달에 한번은 고등학교 동창들과 또 한 번은 대학교 동창들과 산에 갑니다. 친구들과는 주로 청계산에 오르곤 하지요.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혼자 산행을 합니다. 혼자 갈 때는 주로 관악산에 가지요.”

고등학교 친구들, 대학교 친구들과의 바둑 모임에도 꼬박꼬박 참여하느라 이래저래 바쁜 나날을 보내고 계시는 듯 했다. 나 홀로 산행 예찬이 이어졌다.

“혼자 다니는 게 그렇게 편하고 좋더라고요. 쉬고 싶을 때 쉬고, 밥 먹고 싶을 때 먹고, 마음이 편해요. 세상만사가 마음이 편해야 해요.”

겨울에 등산하다가 넘어져서 고생한 이야기 끝에, 직업의식의 발로일까 감사 업무 이야기가 이어졌다.

“겨울 등산 하다가 바위나 고바우가 있으면 조심하잖아요. 그러면 사고가 안나요. 그런데 평지 같은 경사에서 주의하지 않고 걸다가 미끄러져서 팔을 다친 적이 있어요. 고생을 죽도록 했어요. 연구원 일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이런 걸 미리 경고하고 막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감사업무입니다.”

여름 등산에서는 아무래도 좀 더 여유가 생기는데 보자.

“산에 가면 벌렁 누워서 파란 하늘을 아무 생각 없이 하염없이 바라봅니다. 주로 여름에, 눈에도 좋습니다. 시력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죠. 등이 시리면 일어나서 산을 내려오곤 합니다. 보통 한 1시간 정도 누워서 하늘을 봐요. 아무 생각 없이 하염없이...”

오재건 감사님의 눈 속에서 흘러가는 여름 멍게구름을 상상해 본다. 하늘을 머금고 시리도록 푸른 그 눈과 멍게구름처럼 하얗고 가벼운 그 마음의 여유가 부러웠다. 봄이 깊어가는 이 순간에도 그는 관악산 어느 곳에 벌렁 누워 하늘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을 것만 같다.

